

고객 서비스 헌장 선포

지난 1월 2일, 위원회는 2006년 사무식과 함께 위원회 고객 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전문」과 「우리의 다짐」 14항으로 이뤄진 고객서비스 헌장은 위원회가 언론분쟁사건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문자메시지서비스(SMS) 개시

위원회는 위원회를 이용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심리일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시작했다. 이번 SMS는 사건접수와 기일지정 및 결과통보시, 전화 및 우편 안내 외에 추가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심리의 진행 일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9명의 선거기사심의위원을 위촉, 5월 31일에 열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프레스센터 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심심위는 1월 31일 현판식을 갖고,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거기사심의위원 명단(추천기관)〉

- 이 경 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한국신문협회)
- 유 호 봉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 하 창 우 변호사 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 이 명 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
- 안 병 준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언론중재위원회)
- 박 구 진 변호사(열린우리당)
- 강 경 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한나라당)
- 노 향 기 전 월간 말 발행인(언론중재위원회)
-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한국언론학회)

언론중재위원회 간판석 제막식

위원회는 프레스센터 정문에서 조준희 위원장과 이종욱, 허광욱 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간판석 제막식을 가졌다.



신임 중재부장 및 중재위원 위촉

법원 인사이동 및 위원 사퇴로 공석 중이던 중재부장과 중재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새로 임명된 중재부장 및 중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임 중재부장 및 중재위원〉

- | | |
|-------------------------------|------------------------------|
| • 서울제1중재부장 황 정 규 서울동지법 수석부장판사 | • 서울제2중재부장 임 시 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 서울제4중재부장 김 동 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 서울제4중재부 김 영 석 연세대 신방과 교수 |
| • 서울제5중재부 장 윤 환 전 한겨레신문 이사 | • 대구중재부장 김 세 진 대구지법 부장판사 |
| • 대전중재부장 윤 병 구 대전지법 부장판사 | • 경기중재부장 윤 우 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
| • 강원중재부장 이 원 형 춘천지법 부장판사 | • 충북중재부장 어 수 용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 • 전북중재부장 유 길 중 전주지법 부장판사 | • 제주중재부장 고 충 정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2006년도 위원회 정기 총회 개최

위원회는 2월 2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F)에서 2006년도 위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운영위원과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2006년 3월 31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이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9명) : 조준희 위원장, 허광옥 부위원장, 김서중, 조인호, 김동호, 김강덕, 석희태, 유현옥, 하명희 위원
- 시정권고위원(7명) : 조준희 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 이상현, 이수연, 임연택, 최충웅, 조수정 위원

중재위원 워크숍, 위원회 설립 25주년 기념일에 열려

위원회는 이 달 30, 31일 양일간 숙리산 레이크 힐스 관광호텔(충북 보은군)에서 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 설립 25주년을 자축하는 자리를 겸해 열린 이번 워크숍은 『조정사례로 본 새 제도 운용 진단』이라는 주제로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조정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양상승(서울제3중재부) 변호사가 맡았다.

- 사례로 본 손해배상청구(조수정 서울제6중재위원)
- 증거조사 운용안(박정호 서울제6중재부장)
- 합의체 중재부의 효율적인 조정심리(권혁남 전북중재위원)
-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 보도 방법(김서중 서울제3중재위원)